

## 권영철소방관님과 지준영소방관님께

저는 원주 청솔4차아파트 [ ] 서 2011년 11월 13일 저녁에 119에 전화를 하여 두분의 도움으로 살아난 한홍수라고 합니다.

물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시느라 기억도 못하시겠지요.

그 날 저녁에 아무래도 몸이 정상이 아닌 것이 느껴지며 불안해서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병원 아는분께 연락을 해서 응급실에 준비를 시켰지요. 그 후부터는 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불안은 잠시후 두분 소방관님께서 빛과 같은 속도로 응급출동을 해주신 덕에 금방 안정감을 느끼며 순식간에 응급실에 갈 수 있었고 검사결과,당시 혈압이 210이 넘는 상태였고 뇌에 출혈이 생겼다고 하더군요.흔히 말하는 뇌출혈.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만 당시 병원관계자가 하는 말이 워낙 빨리 와서 수술없이 치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19와 통화하고 옷 갈아입은 후에 바로 두분이 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속하면서도 환자를 안심시키고 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친절하셨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만큼 너무도 감사했고 감사하고 있고요.

불철주야,열악한근무환경,아무도 협조해주지 않는 곳.

이런 말들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사고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는 더욱더)

1인시위를 비롯해서 얼마 전의 소방헬기사고 등 여러 가지 언론에서 접하는 모습들에 속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고 진심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예전에 농담으로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밥값 제대로 하는 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뿐이라고.

사고 이후로는 그런 농담을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위험할 때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소방관들 뿐이라고.

진즉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게 도리라 생각했고 사실은 지난해 11월 13일(2년차)에도 원주소방서로 전화를 해서 사연을 말하고 두분을 뵙고싶다고 했더니 두분 모두 전출을 가셔서 연락도 힘들고 이런 전화 하나면 된다고 말씀을 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못드리면 평생 한이 될것같아 소방서에 다시 전화를 드려서 사정에기를 했더니 소방행정과 용정진 소방관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은인들의 성함과 근무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도와주신 용정진소방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영철소방관님 그리고 지준영소방관님.

두 분의 신속한 출동 덕분에 전 이렇게 후유장애 없이 건강히 살고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소방관님들과 그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함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워낙 졸필이라 친필로 글을 올리지 못해서 부끄러움에 사죄를 드립니다.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두 분의 건강에도 신경 좀 쓰시구요.

최악의 조건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님들께 존경한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인사를 마칩니다.

2014년 8월 25일 한 홍수 드림